

제목	국문	생물무기 테러에 대한 1 차 의료인의 인식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문	Current status of primary physician's preparedness about the terrors with biological agents							
저자 및 소속	국문	김정인 <sup>1</sup> , 이상규 <sup>2</sup> , 강명근 <sup>3</sup> , 조우현 <sup>4</sup> , 허남욱 <sup>5</sup> , 김태욱 <sup>6</sup>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sup>1</sup>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2</sup>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3</sup>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4</sup>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sup>5</sup>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sup>6</sup>							
	영문	Jung In Kim <sup>1</sup> , Sang Gyu Lee <sup>2</sup> , Myung Guen Kang <sup>3</sup> , Woo Hyun Cho <sup>4</sup> , Nam Wook Hui <sup>5</sup> , Tae Wook Kim <sup>6</sup> <i>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sup>1</sup>,</i>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i> <i>University<sup>2</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i> <i>Ewha Women's University<sup>3</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i> <i>of Medicine, Yonsei University<sup>4</sup>,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i> <i>School, Yonsei University<sup>5</sup>,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i> <i>School, Yonsei University<sup>6</sup></i>							
분야	보건관리 [의료이용]	발표자	김정인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b>1. 목적</b>									
생물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량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Garrett, 2001). 생물무기에 의한 공격이나 재난의 대응체계가 다른 무기를 이용한 재난이나 공격에 대한 대응양식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공격에서 의료인이 최전선에서 최초반응단계를 구성하게 되며, 이 최초반응단계를 구성하는 1 차 의료인력의 대응능력과 수준이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인력이 생물무기로 인한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고체계를 통해 비상관리체계를 가동시킴으로서 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동체계를 가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생물무기의 위협이 가하고 있는 바, 생물무기 테러 발생 시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1 차 의료인의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b>2. 방법</b>									
일선 의료인들의 생물무기에 대한 인식수준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에서 1 차 의료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의학협회원 전원과 대한응급의학협회원 전원이었고, 조사기간은 2001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이었다. 우편으로 발송된 설문지는 전체 2,293 부였으며, 이중 401 부가 회수(회수율 17.5%)되었으나, 다수의 공란을 남긴 17 부를 제외한 384 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연령, 성, 근무지역, 근무기관, 근무과목, 면허 취득 후 기간 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우리나라에서 생물무기를 이용한 공격의 발생가능성, 외국에서 보건의료인들의 대응양식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생물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인의 대응, 의료인의 바른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격 발생 시 의료인의 위치와 역할, 생물무기에 대한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법정전염병 또는 유사환자를 진단하였을 경우 신고 행태 등 총 34 문항이었다.									
<b>3. 결과</b>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333 명(87.6%), 여성은 47 명(12.4%)이었다. 평균연령은 49.9 세였고, 연령이 40 세 이하가 134 명(35.4%), 40-50 대가 135 명(35.6%), 60 대 이상이 110 명(29.0%)이었다(무응답: 5 명). 근무지는 광역시 소재가 205 명(55.9%), 도 소재가 162 명(44.1%)이었으며(무응답 17 명), 근무기관은 개인의원이 283 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과목은 가정의학과가 231 명(61.3%), 응급의학과가 55 명(14.6%) 순이었다. 면허 취득후 기간은 평균 22.5 년이었고, 이 기간이 30 년 이하가 264 명(69.8%), 31 년 이상이 114 명(30.2%) 이었다(무응답: 6 명). 면허취득 후 기간이 11 년-20 년인 응답자는 120 명(31.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31 년-40 년인 응답자가 82 명(21.7%)이었다.

### 2) 생물무기 테러에 대한 인식

생물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균주의 종류, 미군이 생물병원체의 피해에 대비하여 접종한 백신의 종류, 국내 제조·비축된 백신의 여부 등에 대한 설문항목에서 각각 매겨진 점수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생물테러인지수준을 정하였다. 사용가능한 균주에 대한 점수는 전염병관리법상의 법정전염병의 종별을 기준으로 주었고, 미군이 접종한 백신과 백신의 비축유무에 대한 점수는 ''안다''와 ''모른다''를 기준으로 각각 0 점과 1 점 그리고 2 점(균주의 이름기재)을 주었다.

### 3) 성과 전문과목에 따른 생물무기 테러에 대한 인식

생물무기테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들을 일변량 분석해 보았다. 독립변수는 연령, 성, 근무지역, 근무기관, 전문과목, 면허취득후 기간, 생물무기테러에 대비한 대응방안에 접촉경험, 생물무기테러 가능성 의심경험, 의료인에 대한 생물무기테러 대비 교육과 훈련 필요성 등이었고 종속변수는 생물무기테러에 대한 인식이었다. 분석결과, 성과 전문과목이 생물무기 테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인식점수 평균은 약 2.7 점(표준편차 1.5) 이었고, 여성의 인식점수 평균은 약 1.9 점(표준편차 1.5) 이었다( $p=0.0007$ ). 전문과목이 가정의학과인 응답자의 인식점수 평균은 약 2.6 점이었고, 나머지 과의 인식점수 평균은 2.9 점이었다( $p=0.0421$ ).

### 4) 생물무기 테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물무기 테러에 대한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변량분석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성별과 근무지역은 연령과 근무기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 4.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물무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1 차 의료인의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 수 있었다. 생물무기 테러와 관련한 일반사항에 있어서 1 차 의료인의 약 80%는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접촉한 적이 없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원체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손상 가능성이 적다고 응답했고( $p<0.01$ ), 원인불명의 환자를 진단할 경우 1 차 의료인의 약 91%가 생물무기 테러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생물무기 테러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91.9%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과 훈련의 방법으로는 대한의사협회지를 통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다. 교육과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교육효과는 더욱 좋을 것이다(배호순, 1996). 생물무기테러에 대비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생물무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